4년만에 KTX 정차…활기 넘치는 장성군

장성역 오늘부터 예매 시작…하루 4차례 경유
군민·상무대 군인들 환영…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도

장성이 들떠있다. 다음달 16일부터 장성역이 KTX 정차역으로 운영되면서다. 지난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정차가 중단된 지 4년 여만으로, 장성군은 KTX 정차를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을 쏟고 있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내달 16일부터 용산~서대전~목포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하루 4차례 장성역에 정차한다.

정차 시간은 목포행 2회(낮 12시20분·오후 7시55분), 서울·용산행 2회(오전 6시29분·오후 5시42분)로, 예매는 한 달 전인 16일부터 가능하다.

장성역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까지 KTX가 매일 12회 정차했다가 충복 오송~광주 송정 구간이 신설되면서 중단됐다.

KTX가 장성역에 경유하지 않으면서 역을 찾던 이용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이로 인해 역세권 상가 매출도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 장성역을 이용하던 승객들은 광주 송정 또는 정읍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장성군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을 찾아 KTX 장성역 경유 재개를 건의했고 지난 2016년에는 군민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장성군은 KTX 장성역 경유를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우선, 장성에서 차량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인근 KTX 정차역을 찾아갔던 지역민들이 없도록 읍·면·이장 회의를 통해 KTX 운행 사실을 적극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6일부터 장성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X 이용객들을 위한 주변 도로 정비와 공용 주차 공간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역 인근 주차공간을 사들여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상무대 군인들 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운행 첫날인 다음달 16일에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도 마련하고 향후 이용객 수요를 고려해 정차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KTX 장성역 정차 중단 이후 불편을 겪던 주민들과 상무대 군인들이 환영하고 있다"며 "장성역 인근 상권 또한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군, 세계수영선수권 연계 팸투어 호응

美·佛 등 외국인 36명 선수촌~나주박물관~운주사 관광

화순군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연계해 진행중인 팸투어가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4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온 외국인 36명을 대상으로 선수촌~국립나주박물관~화순 운주사를 둘러보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군은 세계수영대회를 위해 전남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관광 화순'을 홍보하고 지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선호도와 친밀도가 높은 화순 관광코스를 중심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팸투어를 시행하고 있다.

4차례의 팸투어 일정 중 지난달 27일과 29일 진행된 팸투어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운주사의 아름다운 풍광에 반했다",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화순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팸투어가 화순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마지막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화순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광주를 찾아 화순 팸투어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운주사를 둘러보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 한천자연휴양림에 에코힐링휴양관 짓는다

화순 한천자연휴양림 내 자연향기 가득한 '에코힐링 휴양관'이 들어선다.

15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80억 원을 들여 산림휴양지로 주목을 받는 한천자연휴양림 내에 힐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천자연휴양림은 접근성이 좋고 경관이 수려해 휴양객들이 즐겨 찾는 반면, 세미나·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휴양객들을 위한 시설·공간이 부족해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군은 전남도와 산림청을 찾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내년도 산림청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담양군, SRF 분쟁 손해배상 행정심판 승소

전남도 행심위 "군, 1일 500만원 지급의무 없다"

담양군이 고형폐기물(SRF)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손해배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제지회사인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간접 강제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회사측, 보조참가인인 주민을 대상으로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인용에 따른 간접강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연료를 폐기물 70%, SRF 30% 비율로 사용해 오던 것을 지난해 10월 SRF 100%로 전환하겠다고 변경신고를 냈지만 담양군이 주민환경권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었다. 행심위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다. 회사측은 그러나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회사 측이 재처분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고형 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다이옥신 등 특정 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학계 기술검토와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 정부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도 마쳤다.

행심위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인용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 만큼 군이 고형 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재결의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면앙정가·장진주사 랩으로 들으면 어떨까

담양군, 가사문학 주제 '랩 페스티벌' 11월 2일 개최

송순의 면앙정가와 정철의 장진주사를 랩으로 들으면 어떨까.

가사문학을 주제로 하는 랩 페스티벌이 담양에서 열린다.

담양군은 오는 11월 2일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남도 청소년 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포스터〉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가 갈래인 가사시의 문학적 의의를 되살리고 자연스런 음률과 서정적 감성을 현대에 계승·발전시키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하려면 다음달 30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문화행사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한국가사문학관으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작사 및 작곡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기존 가사 작품(면앙정가, 성산별곡, 관동별곡 등)을 활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류심사와 본선 경연을 거쳐 대상 수

상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2명) 각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인문학적 사고를 높이는데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행사로, 내년에는 전국 행사로 치러 가사문학이 더 많이 알려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담양군,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전 가세

담양군도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일부 지자체들은 유치추진위원회까지 구성, 주민결의대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한층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담양군은 지난 13일 군수실에서 장흥고씨 의열공 종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를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중은 군에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담양군은 종중의 현장 및 선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돕는 등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480억원을 들여 기념관·체험관 등을 갖춘 남도의병 역사공원(부지면적 33만㎡) 건립을 추진중으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 부지를 선정한 뒤 2020년 설계, 2021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담양군은 의병의 활동상 등 역사적 사실과 10만평의 부지 제공 및 확보 여부가 대상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평가 요소로 보고 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내 기초자치단체 12곳이 최근 도가 주최한 역사공원 건립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토지 5000평 매매
지리산 관광온천 지구

- 계획관리지역, 전망좋음
- 답 3300평, 임야 1355평, 전 330평
- 송원리조트(블루썬) 옆, 현 상업 나대지 상태
- 지리산 골프장/케이블카 유치中
- 모든업종 개발가능
- 감정/시세 – 약 30억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